

## “하나님과 동등 됨”(τὸ εἶναι ἴσα θεῶ)의 의미에 대한 고찰과 빌립보서 2:6-11 해석

이승현\*

### 1. 들어가는 말

빌립보서 2:6-11에 담겨 있는 케노시스 시에 대한 신약 학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sup>1)</sup> 이 시가 담고 있는 기독교적 의미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의 파급력 때문이다. 이에 학자들은 케노시스 시의 기원과 더불어 그 안에 담긴 다양한 표현들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 왔다.<sup>2)</sup>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등 됨”(τὸ εἶναι ἴσα θεῶ)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체/본체”(μορφή θεοῦ)와 “취할 것/이기적으로 사용하는 행위”(ἄρπαγμός)와 더불어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과 동등 됨의 의미를 하나님의 본체와 동의어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μορφή θεοῦ는 하나님의 형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체와 본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고, 이 두 개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 됨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형체 혹은 본체와 하나님과 동등 됨의 정확한 의미들은 “취할 것” 혹은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번역된 ἄρπαγμός의 의미에 의해서 깊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조사해 볼 것이다.

\* Harvard University, the Divinity Schoo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서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 중. shlee@hoseo.edu.

1) 케노시스 시에 대한 최근 학자들의 토론 경향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Ralph P. Martin and Brian J. Dodd, eds., *Where Christology Began: Essays on Philippians 2*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를 참고하라. 이 본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안내서는 Ralph P. Martin, *Carmen Christi: Philippians ii:5-11*,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3)이다.

2)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케노시스 시의 저자라고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작성된 시를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원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 시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시의 신학적인 전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저자는 케노시스 시에 담긴 신학적인 경향성을 바울의 것으로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최근에 빌립보서 2:6-11의 해석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연구는 마틴(R. P. Martin)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러나 라이트(N. T. Wright)는 후버(R. W. Hoover)의 ἁρπαγμός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를 근거로 마틴의 이해를 반박하면서, 빌립보서 2:6-11을 재해석한다.<sup>3)</sup> 이 과정에서 라이트는 후버의 연구를 근거로 하나님과의 동등 됨이 이미 선재한 예수가 소유했던 신적인 속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서 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체를 신적인 속성과 동일시한다. 라이트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 됨을 의미하는 정관사 부동사구(articular infinitive) τὸ εἶναι ἴσα θεῷ의 정관사가 대용적(anaphoric)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 속에서 라이트는 케노시스 시가 찬양하는 예수의 행동은 바로 그가 선재하던 때부터 소유하던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라이트는 케노시스 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고 인간이 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등 됨의 참다운 의미가 하나님의 자신을 비우는 신적인 사랑임을 계시했다고 결론짓는다.<sup>4)</sup> 라이트에 따르면, 9-11절에 담긴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주심은 이러한 예수의 해석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의미한다.

그러나 케노시스 시에 대한 라이트의 흥미로운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등장한 다른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들은 라이트의 견해를 반박하는 듯하다. 어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형체와 본체 혹은 영광이 상호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들은 의미론적 동의어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sup>5)</sup> 또 어떤 이들은 τὸ εἶναι ἴσα θεῷ의 정관사 부동사구의 정관사는 대용적 용법이 아니라, 구문론적(syntactical)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적 단어임을 주장한다.<sup>6)</sup> 또 어떤 이들은 ἁρπαγμός가 반드시 선재한 예수가 소유하였던 과거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한다.<sup>7)</sup>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

3) N. T. Wright, “‘ἁρπαγμός’ and the Meaning of Philippians 2:5-11”, *JTS* 37 (1986), 321-352. 이 논문은 N. T. Wright, *The Climax of the Covenant* (Edinburgh: T&T Clark, 1991)에서 재출판되었음. R. W. Hoover, “The Harpagmos Enigma: A Philological Solution”, *HTR* 64 (1971), 95-119.

4) N. T. Wright, “‘ἁρπαγμός’ and the Meaning”, 344-345.

5) Dave Steenburg, “The Case Against the Synonymy of *Morphe* and *Eikon*”, *JSNT* 34 (1988), 77-86; Markos Bockmuehl, “‘The Form of God’ (Phil. 2:6): Variations on a Theme of Jewish Mysticism”, *JTS* 48 (1997), 1-24.

6) Denny Burk, “On the Articular Infinitive in Philippians 2:6: A Grammatical Note with Christological Implications”, *TB* 55:2 (2004), 253-274.

7) J. C. O’Neill, “Notes and Observations: Hoover on Harpagmos Reviewed, with a Modest Proposal Concerning Philippians 2:6”, *HTR* 81 (1988), 445-449; James D. G. Dunn, “Christ, Adam, and Preexistence”, Ralph P. Martin and Brian J. Dodd, eds., *Where Christology Began*, 81.

은 케노시스 시가 라이트가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참된 의미에 대한 계시와 확증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의 자기 비움에 대한 찬양시임을 지적한다.<sup>8)</sup>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들의 새로운 학문적인 발견들을 근거로 빌립보서 2:6-11을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해석은 해석하기 어려운 한 단어로부터 시작하여 본문 전체를 해석하기보다는, 본문 전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어려운 단어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저자의 견해로는 케노시스 시의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과 동등 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sup>9)</sup>

## 2. 케노시스 시에 대한 라이트의 견해와 다른 이들의 반론<sup>10)</sup>

### 2.1. ἄρραγγμός

마틴은, 로마이어(Lohmeyer)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선재하신 예수가 항상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였으나, 하나님의 형체가 하나님과 동등 됨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sup>11)</sup> 마틴은 하나님과의 동등 됨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주의 주로 세워지고 만물의 찬양의 대상이 된 사건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2:9-11). 라이트는 빌립보서 2:6-11의 해석에 있어서 마틴의 결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체와 하나님과의 동등 됨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마틴의 해석이 ἄρραγγμός(하르파그모스)를 포함하는 관용구에 대한 후버의 연구의 결론과 대치된다고 주장한다.<sup>12)</sup> 또한 라이트는 하나님과의 동등 됨을 의미하는 부정사구의 정관사가 대응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형체와 동의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체를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 혹은 본체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

먼저, 라이트의 견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후버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

8)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Philippians*, WBC 43 (Dallas: Zondervan, 2015), 116-117.

9) 케노시스 시 전체에 대한 주석적인 분석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를 위해서는 Gerald F. Hawthorne과 Ralph P. Martin, *Philippians*, 90-134와 John Reumann, *Philippia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365-383을 참조하라.

10) Wright의 견해를 반박함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그의 ἄρραγγμός에 대한 논문이 이 단어에 대한 가장 자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고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이다.

11) Ralph P. Martin, *Carmen Christi*, 139-144.

12) N. T. Wright, “‘ἄρραγγμός’ and the Meaning”, 332-333.

자. 후버는 하르파그모스가 “상으로 붙들어야 할 어떤 것”(res retinenda)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3)</sup> 이러한 하르파그모스에 대한 후버의 견해를 라이트는 “어떤 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의 태도”라고 재해석한다.<sup>14)</sup> 여기서 라이트는 어떤 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하르파그모스가 지칭하는 대상은 어떤 이가 이미 소유한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sup>15)</sup> 이 해석을 근거로 라이트는 선재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형체 곧 하나님과의 동등 됨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동등 됨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대신에 예수는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과의 동등 됨 곧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비우고 인간이 됨으로써 “자신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버가 분석하고 있는 하르파그모스의 관용적 표현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버는 먼저 하르파그모스라는 남성 단수 명사형과 하르파그마라는 중성 복수 명사형이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하르파그마가 등장하는 double accusative 관용구에 대해서 조사한다.<sup>16)</sup> 후버는 그 첫 번째 예로 헬리오도루스(Heliodoros)의 *Aethiopica* VIII.7에 등장하는 키벨레(Cybele)와 아르사케(Arsace)의 대화를 언급한다. 키벨레는 아르사케가 구애하는 테아게네스(Theagene)의 연인 카리클레아(Chariclea)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녀의 계획에 대해서 아르사케는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아르사케는 키벨레가 제안한 것을 harpagma로 여기고, 그녀의 오랜 질투심은 분노로 인해 그 정점으로 치달았다...”

여기서 하르파그마는 키벨레의 제안을 아르사케가 이미 정신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sup>17)</sup> 그리고 때마침 성전에 함께 있던 테아게네스와 카리클레아를 본 키벨레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을 제거할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여기서 하르파그마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 혹은 기회를 의미한다고 후버는 주장한다.<sup>18)</sup>

13) N. T. Wright, “‘ἄρπαγμός’ and the Meaning”, 338; R. W. Hoover, “The Harpagmos Enigma”, 102-106.

14) N. T. Wright, “‘ἄρπαγμός’ and the Meaning”, 339.

15) Ibid., 344.

16) R. W. Hoover, “The Harpagmos Enigma”, 108.

17) Ibid., 104-105.

18) Ibid., 106.

후버가 제시하는 또 다른 하르파그모스의 예는 베드로의 십자가상에서의 처형에 대한 유세비우스(Eusebius)의 글에서 발견된다.<sup>19)</sup>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인하여 하르파그몬으로 간주하였다”(Comm. in Luc. 6).

여기서 후버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취할 것” 혹은 “도적질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인하여 “잡아야 할 기회” 혹은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후버는 동일한 의미의 하르파그마의 사용을 유세비우스의 *History of Ecclesia* VIII.12.2에서도 발견한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핍박을 당하여 고난 받던 성도들이 고문을 피하여 지붕 위로 도망치고, 그 위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취하거나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취해야 할 기회 혹은 이익으로 간주했다고 후버는 주장한다.<sup>20)</sup> 결론적으로, 후버는 하르파그모스는 어떤 것을 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기회를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라고 주장한다.<sup>21)</sup>

후버의 견해에 대해서 오닐(J. C. O'Neill)은 그가 충분히 설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sup>22)</sup> 본 저자의 견해로는 후버와 후버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설명하는 라이트의 견해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존재한다. 위에서 후버가 언급한 하르파그모스의 예들은 “정적을 제거할 기회”, “베드로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성도들의 행동”들을 지칭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이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특정한 상태나 지위를 지칭하기보다는, 현재 그들 앞에 놓인 선택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후버와 라이트의 주장대로 베드로나 성도들이 죽음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지, 그들이 그 상황 전에 이미 죽음을 경험하여 죽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하르파그모스가 선재하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 됨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동등 됨을 그 결정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19) Ibid., 108.

20) Ibid., 109.

21) Ibid., 118.

22) J. C. O'Neill, “Notes and Observations”, *HTR* 81:4 (1988), 445-449. 그러나 오닐은 빌 2:6의 본문이 원문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고, 본문 자체를 수정하려 한다. 이러한 오닐의 견해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2.2. 하나님의 형상, 영광, 그리고 본체

후버와 라이트는 하르파그모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따라 하나님과 동등 됨과 하나님의 형체를 동의어로 간주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체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선재하신 예수가 시작부터 하나님의 형체 곧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 됨을 성육신하기 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23)</sup> 이에 대해 데이브 스티버그(Dave Steenburg)는 칠십인역의 많은 예들을 조사한 후, 영광(독사)과 형체(모페) 사이에는 분명한 의미론적 차이점이 존재함을 보인다.<sup>24)</sup> 스티버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외모 그 자체를 표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둘러싼 광체를 의미하고,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형체는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신적인 본성이나 임재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하나님의 형체가 계시될 때 종종 함께 동반되곤 한다.

하나님의 형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는 해석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이콘)으로 지어졌다는 창세기 1:27이 존재한다. 아담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에이콘과 모페는 동의어이므로, 하나님의 형체(모페)를 지녔던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에이콘)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모페가 설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과 동일시하는 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영광을 소유했던 타락 전 아담은 설혹 하나님의 신성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과 동등한 만큼 완전하게 소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왜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유혹에 굴복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한다. 따라서 설혹 선재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 혹은 영광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 됨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동등 됨이 완벽한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과 동등 됨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경배를 포함한다면, 영광이 어떻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고귀한 특징들을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23) N. T. Wright, “‘ἀρπαγμός’ and the Meaning”, 345.

24) Dave Steenburg, “The Case against the Synonymy of Morphe and Eikon”, *JSNT* 34 (1988), 80. Markus Bockmuehl은 바울이 신비주의 유대교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형체를 주의 광대하고 위대한 신적인 몸을 의미한다고 본다. 참조. Markus Bockmuehl, “The Form of God”(Phil. 2:6): Variations on a Theme of Jewish Mysticism”, *JTS* 48 (1997), 1-24.

일부 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 아래서 형상을 본질(우시아)과 아주 가까운 단어로 간주하여 본질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sup>25)</sup>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체는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신적인 특징, 능력 혹은 특성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빌립보서 2:6의 하나님의 형체는 2:7의 종의 형체와 비교되고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체에 대한 해석은 종의 형체라는 표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준다. 종의 형체에서 형체가 영광과 동일시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형체에서 형체도 영광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종의 형체가 인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체는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빌립보서 2:6에서 바울은 선재하신 예수가 하나님 이시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대신 바울은 하나님의 형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신성애의 동참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sup>27)</sup> 형체가 본질을 대표하지만 형체와 본질이 동일시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체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지만 하나님과 동등 됨의 동의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완전한 본질에 속한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동등 됨의 동의어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등 됨의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

### 2.3. articular infinitive(정관사 부동사구)

라이트가 하나님과 동등 됨을 하나님의 형체와 동일시하여 해석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부정사구 τὸ εἶναι ἴσα θεῷ에 포함 된 정관사의 용법 때문이다. 라이트는 이 부정사구의 중성 정관사 τὸ는 부정사구의 표현을 이미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지칭하는 대응적 용법(anaphoric)이라고 주장한다.<sup>28)</sup> 그의 견해에 따르면, 위의 부정사구가 가리키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내용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던 사실이다. 따라서 라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형체의 동의어인 하나님과 동등 됨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과 동의어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서 2:9-11에서 노래하는 예수의

25) Moises Silva, *Philippians* (Grand Rapids: Baker, 2005), 100.

26) *Ibid.*, 103-105.

27)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Philippians*, WBC 43 (Dallas: Zondervan, 2004), 114.

28) N. T. Wright, “‘ἀπαγγέλιος’ and the Meaning”, 344.

지극히 높아지심 곧 하나님의 주권을 공유하고 만물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케노시스 시의 후반부는 너무도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 선재하였던 예수가 성육신 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그리고 오직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예수가 새롭게 얻게 된 하나님께 속한 특권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과의 동등 됨의 관계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우선 부정사구 τὸ εἶναι ἴσα θεῷ에 포함된 정관사가 라이트가 주장하는 대로 대응적 용법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버크(Denny Burk)는 라이트를 포함한 일부 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체와 하나님과의 동등 됨을 위의 정관사의 대응적 용법에 근거하여 의미론적으로 동등한 것 (semantic equivalents)으로 보는 견해를 문법적으로 반박한다.<sup>29)</sup> 버크는 위의 부정사구의 정관사의 기능이 대응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기능을 위한 것임을 증명한다.

버크는 먼저 라이트가 위의 부정사구의 정관사를 무조건적으로 대응적인 용법으로 보는 이유는 블래스(F. Blass)와 더부룬너(A. Debrunner)의 문법책 (BDF)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30)</sup> BDF는 라이트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부정사구의 정관사가 항상 대응적인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BDF에 따르면, 부정사구의 정관사가 명백하게 대응적인 유일한 경우는 같은 본문에서 어원이 같은 용어가 등장할 때뿐이다(예, “살든지 죽든지 ...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0-21). 우리의 논쟁의 대상인 부정사구 τὸ εἶναι ἴσα θεῷ를 포함하고 있는 빌립보서 2:6은 라이트의 주장과 달리 위의 분명한 대응적 용법의 정관사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버크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들은 부정사구의 정관사에 대한 BDF의 평가가 과장되어 있음을 알려준다고 말한다. 버크는 사실 부정사구의 정관사는 구문론적 표시(syntactical marker)로서 부정사의 격(case)을 나타내거나, 다른 구문론적 기능 즉 구조적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더 빈번하게 사용됨을 증명한다.<sup>31)</sup> 특별히 빌립보서 2:6에서 부정사구의 정관사는 두 개의 목적어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좀 더 자

29) Denny Burk, “On the Articular Infinitive in Philippians 2:6”, 253-274. 버크는 사실 라이트가 다른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 Peter T. O’Brie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1), 216; Gerald F. Hawthorne, *Philippians*, WBC 43 (Waco: Nelson, 1983), 84; Gordon D. Fee,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207.

30)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obert W. Funk, trans. and rev.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205.

31) Denny Burk, “On the Articular Infinitive in Philippians 2:6”, 260.



세히 말하자면, οὐχ ἀρπαγμὸν ἠγήσατο τὸ εἶναι ἴσα θεῶ에서 정관사 τὸ는 뒤 따르는 부정사구를 “간주하다”(ἠγήσατο)의 주 목적어로 만드는 동시에, οὐχ ἀρπαγμὸν을 보조 목적어로 만드는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관사 τὸ는 부정사구를 한정하는 한정사(determiner)가 아니라, 별다른 의미론적 가치가 없는 구문론적 기능어로 보는 것이 더 옳다.<sup>32)</sup>

마지막으로 버크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320여 개의 정관사 부정사구(articular infinitive)를 자세히 조사한다. 그리고 버크는 BDF와 라이트의 견해와 달리, 대부분의 경우에 정관사는 대응적인 용법이 아님을 발견한다.<sup>33)</sup> 이 중 201개의 정관사는 정관사를 뒤따르는 부정사구가 앞의 전치사의 목적어임을 알려주기 위한 구문론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치사를 따르지 않는 나머지 122개의 정관사 부정사구의 경우, 82개의 소유격과 여격의 정관사는 부정사구의 격(case)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나머지 경우들에서 주격과 목적격의 정관사들은 목적어와 주어들 간에 존재하는 모호한 문법적 관계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찰에 근거하여 버크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목적격 정관사 부정사구들에서 중성 목적격 정관사들은 부정사구를 명사화시킨 후(substantive), 동사들의 주 목적어로 만드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고 결론 내린다.<sup>34)</sup> 이러한 결론을 근거로 버크는 부정사구에 대한 잘못된 문법적인 추론을 통해서 빌립보서 2:6의 하나님의 형체와 하나님과 동등 됨을 동일시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체와 하나님과의 동등 됨이 라이트의 주장과 달리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특한 별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4. 예수의 겸손과 순종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

라이트는 선재하신 예수가 소유했던 하나님의 형체를 하나님과 동등 됨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동등 됨은 신적인 영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2:6을 해석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은 예수가 자신이 이미 소유한 하나님과의 동등 됨 곧 신적인 영광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한 그의 이타적인 행동으로 본다. 여기서 라이트는 7-8절에 기록된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 예수의 행위는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포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혀 새롭게 재해석하여 계시한 행위라고 주장한다.<sup>35)</sup>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과의 동등 됨을 자

32) Haiim B. Rosen, *Early Greek Grammar and Thought in Heraclitus: the Emergence of the Article* (Jerusalem: Israel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 1988), 30, 37.

33) Denny Burk, “On the Articular Infinitive in Philippians 2:6”, 263-273.

34) *Ibid.*, 273.

신을 위하여 이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스스로 포기해야 할 것으로 바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라이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예수가 자신을 비우신(ἑαυτὸν ἐκένωσεν) 행위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나아가 라이트는 선재하신 예수는 자신이 소유하던 하나님과의 동등 됨을(라이트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어야 할 직무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았다고 강조한다.<sup>36)</sup>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과 동등 됨을 소유한 예수는 자신을 그 직무를 위하여 유일하게 자격이 갖추어진 자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라이트는 자신을 비우고 죽음을 받아들인 예수의 선택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계시의 행위라고 이해한다(비교, 고후 5:19). 따라서 라이트에게 있어서 빌립보서 2:6-8이 묘사하는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스스로 하나님이셨던 분이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이기를 멈추지 않고, 참다운 하나님 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시한 사건이다.<sup>37)</sup> 이렇게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참된 하나님 사랑을 계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라이트는 9-1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의 주로 높이신 사건은 예수의 겸손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어떤 새로운 특권이나 지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주의 주로 높이신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비우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계시했다는 것을 **확증** 시켜준 사건이라는 것이다. 결국 라이트에 따르면 빌립보서 2:6-11에 담긴 케노시스 시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트의 결론은 예수가 우주의 주가 된 사건이 예수가 죽은 후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높아졌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과거에 그가 소유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위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sup>38)</sup> 나아가 라이트는 우주적인 주권과 만물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 됨의 본질에서 제외시키는 해석학적 오류를 범한다. 구약에서 이 두 사실들은 우상들을 향한 여호와의 우월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라이트의 결론은 8절과 9절 사이에 존재하는 예수의 운명에서의 극단적인 대조 효과를 최소화시켜 버린다. 9절에서 시의 저자는 διὸ καὶ(“그러므로” 혹은 “이의 결과로”)라는 표현을 통하여 9-11절에서의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6-8절에서의 예수의 낮아지심에 대한 보상의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여

35) N. T. Wright, “‘ἄρπαγμός’ and the Meaning”, 345.

36) Ibid.

37) Ibid., 346.

38) James D. G. Dunn, “Christ, Adam, and Preexistence”, 82.

주심이 단순히 예수의 하나님 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인정이었다는 라이트의 주장은 ὑπερύψωσεν에 담긴 최상급 표현의 효과를 감소시켜 버린다. 아마도 이 최상급의 표현은 예수가 높아지실 때 경험한 것은 그를 포함하여 하나님 이외의 누구도 과거에 누려보지 못했던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다.<sup>39)</sup>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주의 주와 만물의 경배의 대상으로 높아진 사건은 과거 그가 성육신하기 전 누리던 신적인 지위나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지위나 상태를 가리킨다.<sup>40)</sup> 하나님에 의하여 높아지신 예수가 받은 새로운 이름 “주”는 그의 새로운 지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사실 케노시스 시는 하나님 됨에 대한 예수의 새로운 해석과 그 해석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인증이라기보다는, 예수의 극도로 낮아지신 겸손과 그 겸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극도로 높여주신 사건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다.<sup>41)</sup>

### 3. “하나님과 동등 됨” 과 빌립보서 2:6-11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체, 본성, 영광 그리고 동등 됨 등의 용어들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선재하신 예수가 누렸던 하나님의 형체는 하나님의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상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특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형체가 하나님의 신적인 특징들 혹은 지위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체와 하나님의 본성은 동의어가 아님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후버의 하르파그모스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하나님과 동등 됨을 하나님의 형체와 영광과 동일시하여 케노시스 시를 해석하는 라이트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라이트는 하르파그모스가 예수가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한 마음의 자세 곧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 동등 됨을 사용하지 않은 행위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하르파그모스라는 단어가 항상 어떤 이가 그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음에 대해서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등 됨과 하나님의 형체를 동일시하는 대용적 용법으로 이해되었던 부정사구의 정관사 τὸ도 한정사가 아니라 부정사구에 포함된 내용을 명사화하여 주동사의 목적어로 제시하는 문법적 기능을

39)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Philippians*, 125.

40) O. Cullmann,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67), 180; Ralph P. Martin, *A Hymn of Christ* (Downers Grove: IVP, 1997), xxxi;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Philippians*, 125.

41)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Philippians*, 116.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2:6의 하나님과 동등 됨이 하나님의 형체와 동일시 될 수 없다면, 과연 케노시스 시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등 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 저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이 표현을 담고 있는 케노시스 시 전체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빌립보서 2:6-11은 케노시스 시라고 불린다. 이 시는 예수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후, 다시 하나님에 의하여 높여진 사건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노시스 시의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볼 수 있다.

**<part 1: 6-8절>**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였으나  
 그는 하나님과의 동등 됨을 자신을 위하여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6절)  
 종의 형체를 취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남으로써  
 자신을 비웠다(7절).

인간의 모습으로 발견된 후에는  
 죽음에의 순종을 통하여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었다(8절).

**<part 2: 9-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9절)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고(10절)  
 모든 혀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다(11절).

이처럼 케노시스 시의 구조는 크게 6-8절과 9-11절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가 성육신하기 전 하늘에서 내린 결정(6-7절)과 그 결정을 인하여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가 이 땅에서 경험한 사건으로 구성된다(8절). 선재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형체 곧 신적인 영역에 속하여 존재하였으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자신을 위하여 취하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낮췄다. 선재하

신 예수가 자신을 비운 결정은 종의 형체를 띠고 인간의 모습으로 곧 인간의 본성적 특징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성육신의 사건으로 표현되었다. 예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최정점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에서 발견된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종과 반역자들에게만 허용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케노시스 시의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춘 예수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혹은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일을 노래하고 있다.<sup>42)</sup> 하나님은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만물의 영광을 받는 대상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만 속하던 고귀한 이름 “주”를 의미한다.<sup>43)</sup> 하나님의 이름인 주를 공유하게 된 예수는 우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자로 세워졌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본 저자는 하나님과 동등 됨의 의미는 이러한 케노시스 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44)</sup> 저자는 케노시스 시에서 하나님과 동등 됨의 의미에 대한 두 가지 단서들을 발견한다. 첫 번째 단서는 7-8절에서 이 땅에서 예수가 결정하고 경험한 것들이 6절에서 하늘에서 예수가 포기한 것과 문맥적으로 상호 대조 비교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9-1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주의 주와 경배의 대상으로 높여주신 것이 7-8절의 예수의 낮아짐에 대한 보상 혹은 결과로서 전체 이야기의 반전을 이루고 있고, 6절에서 예수가 포기한 것 곧 하나님과 동등 됨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6절의 οὐχ과 7절의 ἀλλὰ는 두 구절의 내용이 상호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을 문법적으로 보여준다. 6절의 초반부는 선재한 예수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6절의 후반부는 그 지위를 근거로 예수가 자신을 위하여 취하려 하지 않았던 그 무엇을 가리킨다. 7절은 예수가 자신의 신적인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등 됨을 자신을 위하여 취하는 대신에 자신을 비움으로써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한다.<sup>45)</sup> 이런 문법적인

42) Bonnie B. Thurston and Judith M. Ryan, *Philippians and Philemon* (Collegeville: Michael Glazier, 2003), 83; Ralph P. Martin, *A Hymn of Christ*, 100; Moises Silva, *Philippians*, 108-109; cf. Gerald Hawthorne, *Philippians*, 124; Gordon D. Fee,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220. 호튼은 9-11절을 논리적 귀결이라고 부르고, 파울(Stephen E. Fowl)은 하나님의 변론의 패턴이라고 주장한다(*Philipp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7], 101).

43)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Philippians*, 126.

44) 실바(Silva)는 빌 2:6-11에 관한 수많은 다양한 해석들의 존재는 그 의미가 모호한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시 전체를 해석하기보다는, 시 전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애매모호한 단어를 해석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경고한다(Moises Silva, *Philippians*, 103).

45) 여기서 “비웠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에 속한 예수가 이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고, 대신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비교, 고후 8:9; 엡 1:23; 4:10).

측면에서 볼 때, 6절 후반부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는 것과 7절 초반부의 “종의 형체”(μορφή δούλου)를 취하는 것은 서로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동등 됨과 종의 형체는 전자는 예수가 하늘에서 취하지 않은, 그리고 후자는 예수가 땅에서 취한 상호 전혀 상반된 그러나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를 가리킨다. 종의 형체는 하나님의 형체를 지녔던 선재하신 예수가 도저히 취할 수 없었던 가장 낮은 상태나 지위를 의미한다면, 하나님과 동등 됨은 선재하신 예수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상태나 지위를 의미한다. 종의 형체가 예수께 원래 속하지 않았으나 그가 겸손한 순종과 비우심의 결과로 이 땅에서 취한 새로운 상태나 지위를 의미한다면, 하나님과 동등 됨은 원래 예수께 속하지 않았으나 그가 하늘에서 취할 수 있었던 어떤 새로운 상태나 지위를 의미한다.

7절의 문맥에서 종의 형체는 예수가 취한 인간의 모양 혹은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의 성육신의 상태로 표현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 수 있다: “왜 케노시스 시의 저자는 예수가 취한 인간의 형체를 굳이 종의 형체라고 부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떤 학자들은 예수가 취한 노예와 같은 지위 혹은 특징들, 혹은 노예의 역할 등을 제시한다.<sup>46)</sup> 그러나 예수가 세상의 악한 영들 혹은 원칙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케노시스 시는 어떠한 힌트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예수께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도 예수가 종의 형체를 띠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에 대한 의미로 간주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다른 학자들은 종의 형체의 배경으로 “고난 받는 주의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든다(예, 사 52:13-53:12).<sup>47)</sup> 이들은 예수가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표현은 그가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경험한 낮아짐과 높아짐은 케노시스 시에서 예수가 경험한 낮아짐과 높아짐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7절의 종이라는 표현은 예수를 위한 명예로운 호칭이 되고, 그가 선택한 지극히 낮아짐의 의미를 희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sup>48)</sup> 또한 종이라는 한 단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사야의 주의 종에

46) C. F. D. Moule, “Further Reflexions on Philippians 2:5-11”, W. W. Gasque and R. P. Martin, eds., *Apostolic History and the Gospel: Biblical and Historical Essays* (Exeter: Paternoster Press, 1970), 268; Ralph P. Martin, *A Hymn of Christ*, 38.

47)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Philippians*, WBC 43, 119; R. H. Gundry, “Style and Substance in ‘The Myth of God Incarnate’ according to Philippians 2:6-11”, S. E. Porter, P. Joyce and D. E. Orton, eds., *Crossing the Boundaries: Essays in Biblical Interpretation* (Leiden: Brill, 1994), 271-293; N. T. Wright, “‘ἀρπαγμός’ and the Meaning of Philippians 2:5-11”, 60.

48)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Philippians*, WBC 43, 119.

대한 모든 신학적인 전제들을 케노시스 시에 다운로드하는 것은 건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저자는 케노시스 시가 예수가 취한 인간의 모습을 **종의** 형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가 포기하였던 하나님과 동등 됨(본 저자의 의견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신분의 사다리에서 종과 신분적으로 정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가 죽음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은 낮아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우주의 **주권**이다(9-11절). 9-11절의 예수의 주권은 7절의 예수의 종 됨과 정확하게 반의어로 대조되는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우주의 주권**의 정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의 종** 됨이 예수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 곧 하나님과 동등 됨의 정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라면, 우주의 주권과 하나님과 동등 됨은 의미론적으로 동의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선재하신 예수는 자신이 취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자리 곧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그와 상반되는 우주에서 최고로 낮은 자리 곧 종으로서의 지위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춘 예수를 다시 높여주셔서 그가 포기했던 우주의 주권을 그에게 허락하였다. 여기서 예수가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케노시스 시의 시적인 표현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9-11절에 표현된 예수의 우주의 주 되심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 됨을 포기하고 경험했던 종 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의미한다. 9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ὁὖ καὶ)라는 표현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앞에서 언급된 예수의 낮아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보여준다(비교, 요 13:3-17; 마 18:4; 23:12).<sup>49)</sup> 하나님의 지극히 높여주심은 예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9절) 곧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 “주”가 허락된 사실로 표현된다. 십자가에서 종으로 죽은 예수의 운명이 그가 처할 수 있었던 우주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우주의 주의 자리에 오르는 사건은 예수가 처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의미하는 동사 ὑπερύψωσεν이 최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최고로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칠십인역에서 ὑπερύψωσεν은 모든 신들보다도 더 높아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시 96:9; 단 3:26). 따라서 이제 우주의 주가 되신 예수는 과거 그가 선재하던 때 소유했던 지위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sup>50)</sup> 예수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주권과 이제 그가 소유하

49) Peter Oakes, *Philippian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7), 203.

50) O. Cullmann,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174-181;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Philippians*, 125.

게 된 새로운 이름 “주”를 인하여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와는 주라고 불리고, 오직 그만이 우주 만물의 경배의 대상이었다(비교, 사 45:23). 그러므로 현재 우주에서 최고로 높아지신 예수가 소유하게 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 주와 하나님에게만 허락되었던 전 우주적인 경배는 바로 구약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됨의 본질이다. 예수가 새로 취하게 된 우주적인 주권과 경배는 그가 이 땅에서 취했던 종의 형체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비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우주적인 주권과 경배가 바로 그가 종의 형체를 취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포기했던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 됨의 내용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빌립보서 2:6-11은 신적인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신의 영역에 속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경배는 아직 소유하지 못했던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 낮추었고, 이 낮춤의 결과로 혹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하나님과 동등 됨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을 노래하는 시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케노시스 시는 하나님과의 동등 됨 곧 우주적인 주권과 경배는 죽음을 경험하고 높아지신 예수가 누리게 된 새로운 지위임을 분명히 알려준다. 그러나 케노시스 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경배를 허락받은 사실이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지위에 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결과를 가져 왔음을 분명히 한다(εις δόξαν θεοῦ πατρός, 11절).

#### 4. 나가는 말

바울 학자들에게 빌립보서 2:6-11의 케노시스 시는 마치 지뢰밭과 같다. 케노시스 시의 해석은 그 앞에 놓인 수많은 해석학적 지뢰들을 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여섯 절의 짧은 시는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론적 시들 중의 하나이다. 이 시의 작성은 빌립보서를 훨씬 뛰어넘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케노시스 시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학문적인 수고를 요구하므로, 이 짧은 논문에서 더 이상 자세히 다룰 수 없다.

본 저자가 이 논문에서 이루고자 했던 바는 후버의 하르파그모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케노시스 시를 해석한 라이트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이다. 저자는 하르파그모스에 대한 실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후버의 연구를 재조사하였고, 부정사구의 정관사 용법과 하나님의 형체와 영광의 의미들도 자



세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케노시스 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본질은 자기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가 보인 자신을 비우고 낮아짐의 행동이 참된 겸손함의 표현임을 노래한 시임을 강조했다. 저자는 케노시스 시에 대한 라이트의 해석에 많은 오류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라이트의 해석에 대한 대안으로, 본 저자는 먼저 예수가 포기한 하나님과의 동등 됨은 예수가 새롭게 받은 우주적인 주권과 경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견해를 토대로 케노시스 시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결국 본 저자의 견해로는 라이트가 비판했던 케노시스 시에 대한 마틴의 견해가 라이트의 견해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주제어>(Keyword)

하나님과 동등 됨,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본성, 영광, 우주적인 주권.  
equality with God, God's nature, God's form, glory, the cosmic lordship.

(투고 일자: 2016년 6월 23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Blass, F. and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obert W. Funk., trans. and rev.,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ockmuehl, Markus, “‘The Form of God’ (Phil. 2:6): Variations on a Theme of Jewish Mysticism”, *JTS* 48 (1997), 1-24.
- Burk, Denny, “On the Articular Infinitive in Philippians 2:6: A Grammatical Note with Christological Implications”, *TB* 55:2 (2004), 253-274.
- Cullman, Oscar,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67.
- Dunn, James D. G., “Christ, Adam, and Preexistence”, Martin, Ralph P. and Brian J. Dodd, eds., *Where Christology Began: Essays on Philippians 2*,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74-83.
- Fee, Gordon D.,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 Fowl, Stephen E., *Philipp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7.
- Gundry, R. H., “Style and Substance in ‘The Myth of God Incarnate’ according to Philippians 2:6-11”, S. E. Porter, P. Joyce and D. E. Orton, eds., *Crossing the Boundaries: Essays in Biblical Interpretation*, Leiden: Brill, 1994, 271-293.
- Hawthorne, Gerald F., *Philippians*, WBC 43, Waco: Nelson, 1983.
- Hawthorne, Gerald F. and Martin, Ralph, *Philippians*, rev., WBC 43, Waco: Nelson, 2004.
- Hawthorne, Gerald and Martin, Ralph, *Philippians*, WBC 43, Dallas: Zondervan, 2015.
- Hoover, R. W., “The Harpamos Enigma: A Philological Solution”, *HTR* 64 (1971), 95-119.
- Martin, Ralph P. and Dodd, Brian J., eds., *Where Christology Began: Essays on Philippians 2*,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Martin, Ralph P., *Carmen Christi: Philippians ii:5-11*,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3.
- Martin, Ralph P., *A Hymn of Christ*, Downers Grove: IVP, 1997.
- Moule, C. F. D., “Further Reflexions on Philippians 2:5-11”, W. W. Gasque and R. P. Martin, eds., *Apostolic History and the Gospel: Biblical and*

- Historical Essays*, Exeter: Paternoster Press, 1970, 264-276.
- Oakes, Peter, *Philippian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7.
- O'Brien, Peter T.,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1.
- O'Neill, J. C., "Notes and Observations: Hoover on *Harpagmos* Reviewed, with a Modest Proposal Concerning Philippians 2:6", *HTR* 81 (1988), 445-449.
- Reumann, John, *Philippia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Rosen, Haiim B., *Early Greek Grammar and Thought in Heraclitus: the Emergence of the Article*, Jerusalem: Israel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 1988.
- Silva, Moises, *Philippians*, Grand Rapids: Baker, 2005.
- Steenburg, Dave, "The Case Against the Synonymity of *Morphe* and *Eikon*", *JSNT* 34 (1988), 77-86.
- Thurston, Bonnie B. and Ryan, Judith M., *Philippians and Philemon*, Collegeville: Michael Glazier, 2003.
- Wright, N. T., "'ἀρπαγμός' and the Meaning of Philippians 2:5-11", *JTS* 37 (1986), 321-352.

<Abstract>

## **The Examination of “the Equality with God” and the Interpretation of Philippians 2:6-11**

Seung Hyun Lee  
(Hoseo University)

Philippians 2:6-11 has been at the center of Pauline scholarship for a long time. The passage is called the Kenosis hymn, since it praises Jesus' emptying himself for the sake of others. While it was Ralph Martin's view that stood out as the most popular among scholars, N. T. Wright challenged him on the basis of Hoover's linguistic analysis of the term *harpagmos*. However, many scholars then published their articles, criticizing Wright in various ways. They claim that *harpagmos* does not necessarily mean what Jesus had already possessed before his kenosis, that the articular infinitive is not anaphoric, and that God's form cannot be a synonym for God's glory or nature. In this article, I will explore the key points of Wright and Hoover, and then, examine other scholars' criticism of them. In light of their challenge against Wright and Hoover, the author will then reexamine the kenosis hymn in Philippians 2:6-11, and question their view that the equality with God was what Jesus possessed in heaven before his incarnation. The author argues that the equality with God is what God offered to Jesus at his exaltation as a compensation for his humbleness. While Jesus existed in the form of God before his incarnation, namely, in the divine status in heaven, he was not equal to God in every aspect of his status since he then and there was not called the Lord of the universe yet. According to the author's analysis of the Kenosis hymn, the equality with God consists of the possession of God's name the "Lord" and his cosmic lordship over those who are in heaven,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ccording to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hymn, it seems to be true that Jesus did not possess this equality with God before his incarnation. It is only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at Jesus was exalted as Lord, and was bestowed the cosmic lordship. The name Lord, which was originally God's name, and the cosmic lordship, which belonged to God only, now become status markers for the exalted Jesus. And this exaltation of Jesus became true as a result of God's reward for his obedience and humbleness. The author knows that he does not have the last word for this complicated hymn of Philippians 2:6-11, but it is his hope that this article will help scholars move forward in their analysis of the Philippian hymn beyond what Wright and Hoover have argued.